광주시,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요충지 '급부상'

국내 유망 팹리스 기업 유치 잇따라
IT 인프라기업, 실증기반시스템 구축
지역 주요산업 융합·기술혁신 기대
강 시장 "지역 성장동력 적극 뒷받침"

'인공지능(AI) 대표도시' 광주로 국내 유망 팹리스(반도체설계) 기업과 정보기술(IT) 인프라 기업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부품인 AI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들이 광주에 둥지를 틀면서 지역 산업 생태계 확장은 물론 기존 유치기업들과 협력으로 광주시가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의 주요 무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2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팹리스 기업 ㈜디노티시아, ㈜아이닉스, ㈜쿠오핀과 정보기술 인프라 기업인 ㈜케이티엔에프, ㈜명인이노 등 5개 기업과 '광주형 AI 비즈니스 업무협약'(275~279번째)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정무경 ㈜디노티시아 대표이사, 황정현 ㈜아이닉스 대표이사, 이상훈 ㈜쿠오핀 대표이사, 김상수㈜케이티엔에프 전무이사, 정진용 ㈜명인이노 부사장을 비롯해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강현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5개 기업은 지역기업들과 협력해 자사 제품·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광주시는 인공지능 인프라 지원, 전문 인재 양성, 관련 기관·기업 연계 등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으로 국내 유망 팹리스기업인 ㈜디노티시아, ㈜아이닉스, ㈜쿠오핀은 광주시 팹리스 유치기업에 가세, 총 9개 팹리스 기업이 광주에서 AI기술을 뽐내게 됐다.

이들 기업은 각각 거대언어모델(LLM), 영상신호처리(ISP), 영상전송, 원격관제에 특화된 반도체 개발에 강점이 있어 미래모빌리티, 제조업 등 광주시 주요 산업과 융합해 기술 혁신·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보기술(IT) 인프라기업인 ㈜케이티엔에프, ㈜명인이노는 기업의 인공지능 모델 학습과 제품 실증에 필요한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실질적인 지원군 역할을 한다. 지역 내 인공지능 전용 서버의 공급 범위를 넓히고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 서비스 구동을 위한 최적의 환경 제공으로 광주시 인공지능 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대표들은 "광주는 정부 지원, 인프라, 산업융합, 비용절감, 기관·기업과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진 인공지능 중심도시"라며 "광주시 인공지능 기반 시설과 인재를 활용해 기술력과 시장경쟁력을 키우고, 지역기업과 협력해 기술과 산업이 연계된 생태계 기반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 시장은 "AI 생태계 구축에 가족이 된 기업들을 환영한다"며 "5개 기업의 기술력이 광주의 인공지능 인프라, 정책과 만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 지역 성장동력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약기업인 △㈜디노티시아는 AI와 반도체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는 전문기업 △㈜아이닉스는 영상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보안카메라용 반도체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온 기업 △㈜쿠오핀은 초저지연 영상전송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는 기업 △㈜케이티엔에프는 국산 서버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기업 △㈜명인이노는 AI, 딥러닝 등 고성능 컴퓨팅이 필요한 분야에 맞춤형 IT 기반시설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기업으로, 각 분야에서 특화된 반도체 제작 혁신기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광주시, 모기 방역 강화…방역단 150여명 편성

65개반 운영·주3회 이상 방역

광주시가 하절기 모기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21일 오후 보건소 방역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매개체 방제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하절기 대비 방역소독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교육은 여름철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목표로 실시했다.

모기의 생태 이해, 방제약품 사용, 환경친화적 방제 수행 방법, 현장 사례 공유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교육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2~3월 해빙기 기간 동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유충 서식지에 대한 선제적 방제를 완료했다. 기온이 상승하는 4월부터는 성충 방제를 중심으로 하절기 방역소독 체계를 가동 중이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에 총 65개 반, 150여명 규모의 방역단을 편성했다.

방역단은 1700여대의 방역장비를 동원해 공중화장실, 하수구 등 취약지와 위생해충 발생 빈번 지역을 중심으로 주 3회 이상 방역소독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 출현을 확인, 지난달 27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른 조치다.

정상아 기자

북구어린이집 지구의날 캠페인 지구의 날을 하루 앞둔 21일 광주 북구청어린이집 아이들과 구청 기후환경과 직원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의미를 담은 문구가 적힌 탄소중립 손팻말을 들고 지구 살리기 길거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전남 농아노인복지센터, 이용자 만족도 높아

어르신 여가·사회참여 활동 지원

전남도가 청각·언어장애로 복지관이나 경로당 이용이 어려운 농아 어르신의 여가와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농아노인복지센터가 농아 어르신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등록 장애인은 13만4023명이다. 이중 청각·언어장애인은 2만848명으로 15.5%에 달하며, 이중 65세 이상이 80%에 해당하는 1만6469명이다. 순천, 광양 등 동부권에는 65세 이상 농아 어르신 4797명이 거주하고 있다.

전남도는 2018년 목포지역에 전남 센터를 개소, 1년간 시범 운영한 결과 농아 어르신의 참여와 호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각·언어 장애인을 배려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설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 2019년 순천에 이어 지난해 광양에도 개소해 운영 중이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장애인 권익증진·사회통합 인식 공유

영광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차별없이 존중받는 사회 다짐

전남도가 21일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함께 나눴다.

이번 행사는 전남도와 영광군이 공동 주최하고, 전남장애인의날공동추진위원회(지체·시각·농아)가 주관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장세일 영광군수, 이개호·서미화 국회의원을 비롯해 장애인과 가족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장애인 사물놀이와 난타팀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함평영화학교 학생들의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 축사, 장학금 기탁식 등이 이어졌다.

특히 장애 극복과 사회 참여의 귀감이 된 이들에게 수여하는 '전남도 장한 장애인 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작가로 30년 이상 활동해온 박영실 화가가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 화가는 지체장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예술 활동을 이어오며, 제4143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2022·2024년 청와대 장애예술인 특별전 참여, 제3회 대한민국 장애인서예대전 대상 수상 등 장애예술인의 역량을 널리 알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전남도 장한 장애인상에는 박슬기(한전KDN 소속 장애인사이클 국가대표), 박영철(척수장애인협회 여수시지회장·휠체어댄스스포츠 국가대표 출신), 박주영(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다수 수상자·광고디자인회사 대표)이 각각 수상했다.

또한 장애인복지 증진에 헌신한 유공자 27명에 대한 표창도 수여돼 현장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들의 사기를 북돋고 자긍심을 높였다.

전남지체장애인협회(김종택 협회장)는 전남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사용해달라며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남도에 기탁했다. 기탁식은 기념행사 중 함께 진행돼 행사 의미를 더했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서비스, 이동식 카페(푸드트럭), 장애인 생산품 전시, 전남행복버스 운영, 장한 장애인 대상 수상자 특별 작품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도민 모두가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함께 만들자는 뜻을 되새기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가 실현되도록 전남도가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10월11일 무등산권 지오마라톤 개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기원

광주시는 전남도·담양군·화순군 등과 함께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7주년을 기념해 오는 10월11일 화순과 담양 일원에서 '제4회 무등산권 지오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마라톤대회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5·18코스' 450명을 포함해 전국 1450명의 마라토너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마라톤대회 코스는 30㎞ 코스, 하프(Half) 코스, 10㎞ 코스, 5.18㎞ 코스, 2㎞ 코스 등으로 구성됐다. 대회 당일 오전 8시10분 화순 금호화순리조트 앞 공용주차장에서 출발해 담양 가사문학면 인암삼거리를 지나 다시 금호화순리조트로 돌아오는 코스다.

무등산권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재인증 기원'을 주제로, 서유리 공룡화석지를 탐방하는 '지오트레일 2㎞ 걷기 코스'를 신설,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오해설사의 교육 코스도 만들었다.

이번 대회는 윤여춘 해설위원(대한육상연맹부회장)과 '2023 동아마스터즈·2024 지오마라톤대회' 우승자인 로버트 허드슨 홍보대사와 함께한다.

'보고 달리고 즐기자'라는 슬로건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달리고 즐기면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달림이 대회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광주시는 오는 28일부터 5월27일까지 한달간 마라톤대회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접수는 제4회 무등산권 지오마라톤 대회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정상아 기자

전남도, 아시아 5개국 지방정부 교류 강화

도 개최 국제행사 소개·문화 체험

전남도가 아시아 주요 지방정부와 교류를 강화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제2회 전남도-아시아 우호지역 교류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주요 우호지역을 포함해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신흥 잠재지역까지 총 5개국 20개 지방정부와 폭넓은 교류협력의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교류회의는 아시아 각국의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행사에는 40여 명의 국제교류 담당자가 참석해 전남도와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전남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고, 오는 2026년에 열릴 여수세계섬박람회를 비롯해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국제농업박람회,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등 주요 국제행사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오지현 기자